

인권상담창구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 인권상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느끼거나 잘 몰라서 곤란에 처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경우에 인권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은 반드시 지킵니다.)

면접을 통한 상담



※인권옹호 위원이 면접을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가능한 요일, 시간, 연락처 등

매주 수요일 (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13:00 ~ 16:00

연락처 | **요코하마시 시민상담실**
☎ 045-671-2306

※1주일 전 8:45부터 창구 또는 전화로 예약 접수.
※최신 정보는 요코하마시 시민국 시민상담실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요코하마시 시민국 시민상담실 [검색](#)

전화상담



※이 전화는 민간 다언어 전화통역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연결된 후 관할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으로 연결됩니다. 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상담 가능한 요일, 시간, 연락처 등

월요일~금요일 (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9:00 ~ 17:00

외국어 인권상담 다이얼
☎ 0570-090911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및 베트남어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영어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en.html
중국어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zh.html
한국어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ko.html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한 분※께서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곤란한 점, 고민되는 점, 심신 상태의 난조 등, 무엇이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코하마시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요코하마시에서 근무, 재학 중인 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요코하마시 직원 (사회복지직)이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 면접 상담도 실시합니다. (예약제)

상담 가능한 요일, 시간, 연락처 등

월요일~금요일 (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9:00 ~ 17:00

연락처 | **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
☎ 045-671-3117
☎ 045-681-5453
✉ sh-cvsoudan@city.yokohama.jp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개정판”은 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개정판 [검색](#)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개정판" 【개요판】

편집, 발행 | 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 2022년 3월 발행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 045-671-2718 ☎ 045-681-5453 ✉ sh-jinken@city.yokohama.jp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2022년 3월 개정)

개요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며

- 제 1장 인권시책 기본지침의 위치 매김
- 제 2장 인권시책 추진 방침
- 제 3장 인권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
- 제 4장 다양한 인권 과제에 대한 활동
- 제 5장 인권시책 추진 체제 등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의 위치 매김

인권이란?

인권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에 관한 고유의 권리로서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길입니다.

지침의 위치 매김

본 지침은 요코하마시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제시함과 동시에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활동의 전체상을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인권을 둘러싼 상황

최근 들어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인권의 존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을 작성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SDGs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인권존중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자, 의료 종사자 및 그 가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비방 등 배려심 없는 언행들이 늘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성과 조화”를 콘셉트 중 하나로 내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 대회가 개최되며 지금까지보다 더 인권존중의 이념 실현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2011년에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원칙.

- ①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②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 ③ 구제에 대한 접근의 세 가지 핵심으로 구성되어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존중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현황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

Q 당신은 어떤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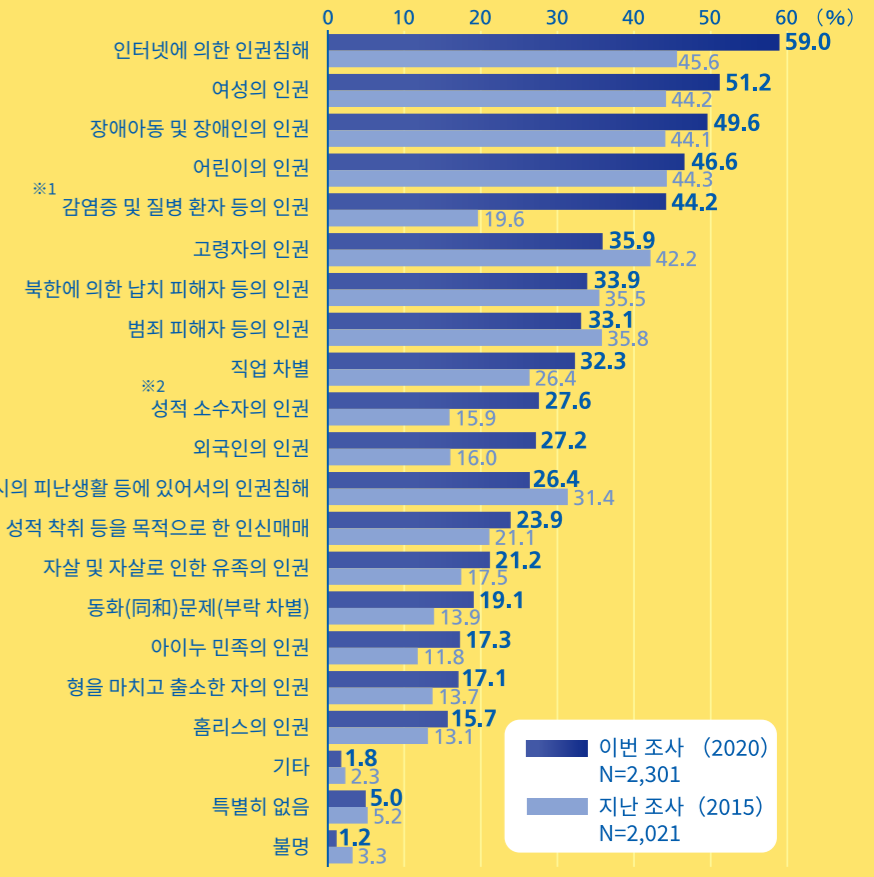
A

- 1위 인터넷에 의한 인권침해
- 2위 여성의 인권
- 3위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
- 4위 어린이의 인권
- 5위 감염증 및 질병 환자 등의 인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염증 및 질병”이 대폭으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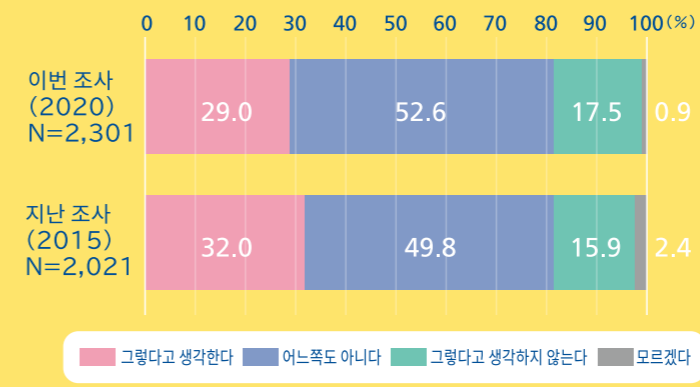
본 의식조사에서도 “감염증 및 질병 환자 등의 인권”이 지난 조사 이후로 대폭 증가하여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염증이기에 때문에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여 관심도가 높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자, 의료 종사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배려심 없는 언행 등이 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고용환경 악화나 외국 출신자들에 대한 비방 등, 다양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발췌)

※1 지난 조사에서는 “HIV감염자나 Hansen병 환자 및 회복자 등의 인권문제”
 ※2 지난 조사에서는 “이른바 LGBT 등,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

Q 지금의 일본은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인가?



2020년도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발췌)

편견과 차별의 요인

- ①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일방적 결정
- ②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려는 심리
- ③ 나와 다른 가치관의 부정
- ④ 고유화된 관념

이러한 것들은 그 사회의 다수자와 우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그것이 당연한 듯 의식화된 후 소수자와 열세에 처한 이들을 향하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라는 점을 깨닫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차별적인 것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편견들은 종종 차별을 받는 쪽에 문제와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인권시책 추진 방침

지향하는 사회상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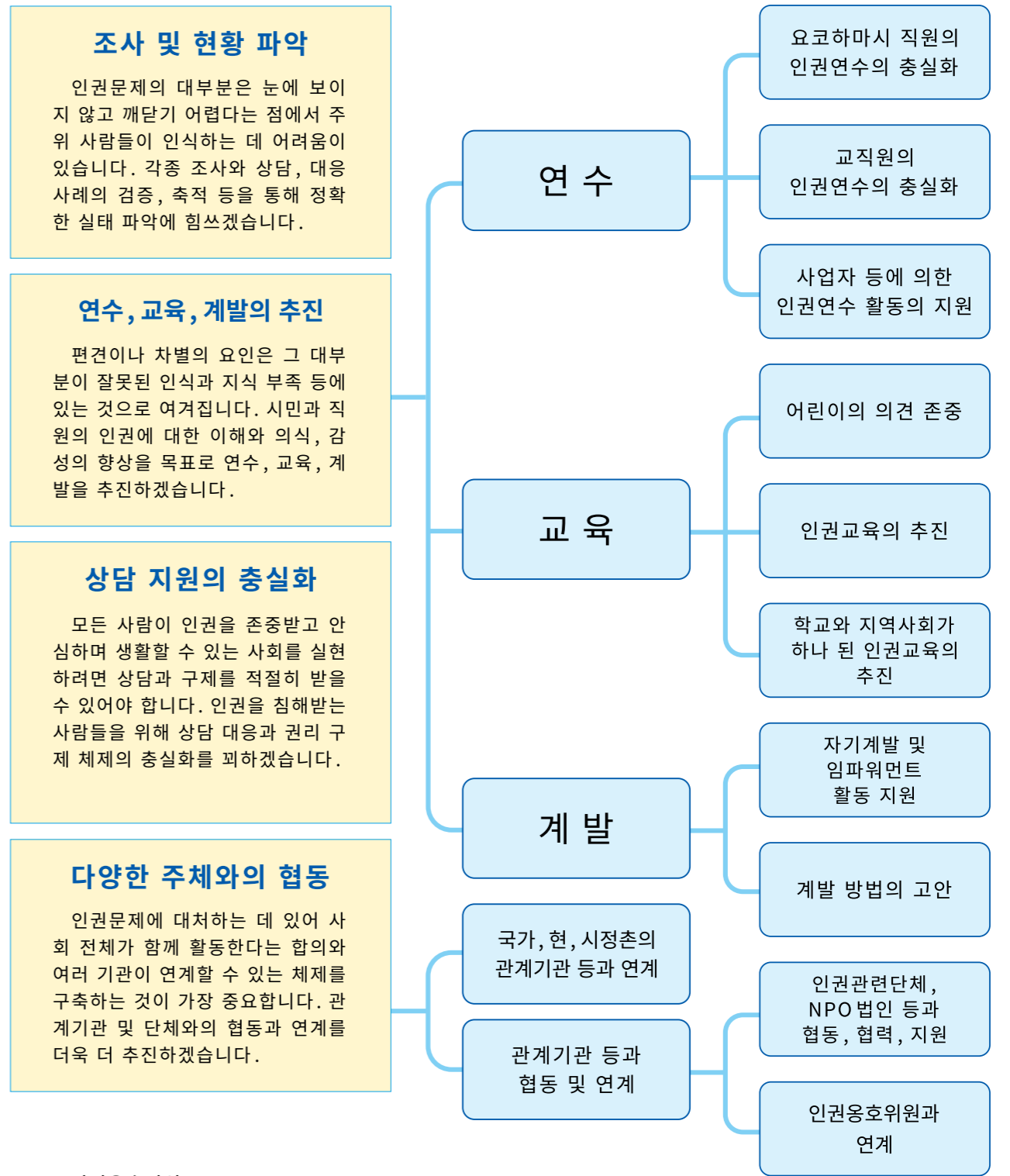
사람은 제각기 신체 조건과 피부 색이 다르고 언어, 그리고 태어나 자란 국가와 지역도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서로가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로 다가가는 첫 걸음입니다.



활동의 관점

- 1 인권문제를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의식과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로 생각한다
- 2 차별받는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 3 다양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4 국내외 사회정세의 변화 및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 5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모든 시책과 사업을 항상 점검하고 검증한다
- 6 인권관련단체, NPO 법인 등과 협동 및 연계를 추진한다
- 7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권옹호의 균형을 배려한다

인권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



인권옹호위원

인권옹호위원회법에 기초하여 법무대신의 위촉을 받았습니다. 인권존중 사상을 전파하여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권을 옹호해 나가기 위해 인권상담, 계발활동 등 인권과 관련한 여러 방면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 과제에 대한 활동

다양한 과제에 대해 역사와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고, 교육, 계발에서 상담, 지원까지 하나로 이어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과 같이 여러 분야의 속성을 가진 당사자가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나 “주거지 확보”와 같이 고령자나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등, 인권문제는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배경에 있는 과제와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는 한편, 과제 분야에 공통된 문제들을 폭넓게 파악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성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사고 방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성 역할 분담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녀 공동참여 사회의 실현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촉진 및 남녀 공동참여와 관련한 시책을 더 많이 추진하고, 이와 동

시에 성 역할 분담 의식의 해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분야에서 대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의 방향성

- 남녀 공동참여 관련 조사의 실시
- 누구나 일하기 편한 직장 만들기의 추진
-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 성차별 등의 상담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및 안심의 확보와 자립을 위한 지원의 충실화

어린이

괴롭힘, 영 케어러, 은둔형 외톨이, 빈곤, 학대 등,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혹독해져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회 전체가 활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 육성, 아동학대와 괴롭힘 등의 방지, 가정 및 지역활동에서의 계발활동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의 방향성

- 모든 어린이 학생 및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의식 양성
- 관계기관에 의한 젊은이들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제 충실화
- “요코하마시의 어린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에 기초한, 미연 방지에서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재발 방지에 이르는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시책의 추진

용어 영 케어러
가족 중에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본래 어른이 맡아야 할 케어 책임을 떠안아 집안일과 가족 돌봄, 간호 등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함.

- 여성
- 외국인
- 성적소수자
- 인터넷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어린이
- 감염증 및 질병
- 자살 및 자살로 인한 유족
- 재해에 수반되는 인권문제
- 고령자
- 직업차별
- 범죄 피해자 등
- 그 밖의 과제
- 부락 차별 (동화문제)
- 홈리스
- 장애인

고령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 된 가운데 학대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그러한 환경조성을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

니다. 최근에는 치매에 걸린 고령자와 함께 약년성 치매에 걸린 분들에게 대한 이해와 지원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등, 고령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의 방향성

- 요코하마시 고령자 실태조사 실시
- 고령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배리어프리화의 추진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 계발
- 고령자 학대의 미연 방지,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개호자에 대한 지원
- 약년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에 걸려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체제 조성

장애아동 및 장애인

합리적 배려의 실시 등을 포함시킨 “장애인차별해소법”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이 지금도 수많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측에 있다”는 “사회 모델”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를 사회 측의 과제로 인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의 방향성

-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사례 파악
- 개개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등에서의 장애에 대한 이해 촉진
- 장애인 학대의 미연 방지,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형성 과정에 장애 당사자가 참여

부락 차별 (동화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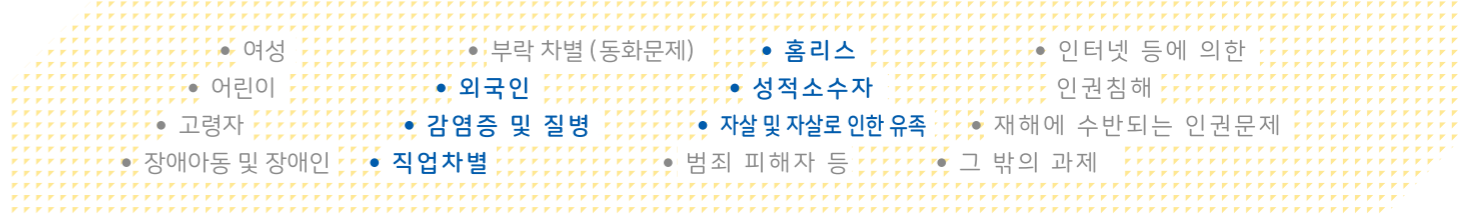
교육, 취업과 같은 생활 과제를 비롯해 “신원 조사”를 목적으로 한 호적 등의 부정 취득, 편견에 기인한 인터넷 상의 차별적 댓글 달기와 지역 특정 등으로 인해 지금도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락차별해소추진법”에는 아직까지도 부락 차별이 존재함과 동시에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부락 차별에 관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락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락 차별 (동화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고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의 방향성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 인권교육에서의 동화문제에 관한 활동
- 본인통지제도에 의한 본인의 권리이익 보호 및 주민표 등의 부정취득 억제
- 행정, 시민, 지역, 사업소, 단체 등의 연계를 통한 계발 활동



외국인

시민 약 35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며 출신지 또한 약 160개 국가와 지역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문화나 생활 습관의 차이, 의사 소통 과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심한 대처가 요구되며, 문화, 종교, 생활 습관 등의 다양성에 대해 이

해를 넓히고 이를 존중함으로써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족이나 국적,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코하마 시민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일본인과 외국인이 모두 함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활력 넘치는 다문화 공생사회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책의 방향성**
- 외국인 의식조사 실시
 - 외국인 어린이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 다언어를 통한 홍보와 정보 제공의 추진
 -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서포트하는 상담기관의 충실화 및 상담기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감염증 및 질병

감염증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주위의 지식과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가족까지 포함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자 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차별적 댓글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증 및 질병 환자 등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이해 촉진 등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감염증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책의 방향성**
- 요코하마 시민의 의료에 관한 의식조사 실시
 - 인포드 콘센트(사전동의)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발
 - HIV,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증이나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수반한 대응
 -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 및 협력

직업차별

다양한 직업에 의해 일상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직업의 의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생하는 행위를 “잔인한” 일을 하는 행위로 생각하거나 죽음을 기피하는 마음 등으로 인해, 식육을 생산하는 도축 업무,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개, 고양이의 수용 업무, 장례식장이나 묘지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이유 없이 차별적 언행을 당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편견이나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활력있게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책의 방향성**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되물으며, 직원 및 교직원에 대한 연수와 계발을 추진
 - 시민에 대한 홍보 및 계발의 추진
 - 자기 자신의 과제 해결과 가능성 발휘를 위해 실시하는 활동(임파워먼트) 지원
 - 관련기관에게 입수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등의 연계 및 협력

홈리스

홈리스 상태임이 확연해 보이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거주가 불안정하여 홈리스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습격 사건이나 괴롭힘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견, 배제하려는 마음이

없애는 한편,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이해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홈리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노상생활의 탈피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민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책의 방향성**
- 시내 각처의 순찰 상담 시에 상황을 파악
 - “홍보 요코하마”와 인권연수 등을 통한 계발
 - 각 구청 창구, 자립지원시설, 순찰 상담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권옹호를 일순위에 둔 지원
 - “제4기 요코하마시 홈리스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시책 계획”에 기초한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의 연계에 의한 홈리스 자립 지원 시책의 추진

성적소수자 (섹슈얼 마이너리티)

성적 소수자의 비율은 5~8%로 보이며 학교나 직장 동료, 가족으로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나 이해는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차별이나 편견이 두려워 고민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OGI라는 말이 나타내듯 누구에게나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이 있으며 성의 존재 방식

은 다양합니다.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답게” 활기 넘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차별과 편견, 생활 속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책의 방향성**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 성적 소수자에 관한 시민, 사업소 등에 대한 계발
 - 파트너십 선언 제도의 운용
 -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 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용어 SOGI란? 성적 성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의 앞글자를 딴 약칭. 특정한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말.

자살 및 자살로 인한 유족

자살의 배경에는 경제 및 생활문제, 건강문제, 노동문제, 가정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시대에 모두가 일상생활과 업무에 있어 자살 대책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살 유족을 위한 적절한 대응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살의 궁지에 몰리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자살 대책 계획”에 기초하여 관계 기관 등과 연계하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책의 방향성**
- 마음의 건강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자살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의 실시
 - “게이트키퍼”의 육성
 - 전문 상담원에 의한 전화상담 등 남겨진 분들에 대한 지원의 추진
 -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강화

- 여성
- 어린이
- 고령자
- 장애아동 및 장애인
- 부락 차별 (동화문제)
- 외국인
- 감염증 및 질병
- 직업차별
- 홈리스
- 성적소수자
- 자살 및 자살로 인한 유족
- 범죄 피해자 등
- 인터넷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재해에 수반되는 인권문제
- 그 밖의 과제

범죄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은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타격을 입고 일상생활상의 다양한 곤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물이해와 배려심 없는 언행으로 인해 이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등이 평온한 생활을 되돌릴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피해자 등이 처한

상황과 심정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기초한 지원 및 지원에 종사할 인재 육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발 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의 방향성

-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의 피해자 등의 현황 파악
- 피해자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구국 창구 직원 대상의 연수
- 다기관 연계를 통한 매끄러운 지원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시내 관계기관과의 연계 지원 체제 정비 사업

인터넷 등에 의한 인권침해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한편 타인의 비방이나 모욕,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의 무단 게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적 댓글과 같은 인권침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터넷의 특징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인권을 배려하며 이용하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양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를 발신할 때는 누구나 공평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관리에 힘쓰고,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계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의 방향성

- 현이 실시하는 인터넷상 차별의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통한 파악
- 인터넷을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보호자 계발
- 상담기관, 상담창구 알리기
-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 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재해에 수반되는 인권문제

피난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어려운 점 이외에도 재해시 보살핌이 필요한 자나 성적 소수자, 여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장기화하는 피난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시에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침착함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떠올려 보는” 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난생활에서의 안심과 안전 확보, 여성 및 재해시 보살핌이 필요한 자 등을 배려한 피난지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의 방향성

- 요코하마 시민의 방재 및 감재 의식,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소 운영훈련 등의 실시, 알림, 계발
- 남녀공동참여의 관점을 반영한 방재 체제의 확립, 남녀별 수요의 차이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 지원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 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그 밖의 과제

원주민족(아이누 민족), 납치 피해자 등,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 인신매매(트래피킹), 해러스먼트, 생활근공자, 의존증 등의 인권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당사자 등에 대한 지원과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는 계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소중하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용의 마음이 요구됩니다.

시의 추진 체제

시청 전체적 추진 조직으로서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추진 회의”를 설치하여 관련부서 간에 긴밀히 연계하면서 인권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요코하마시 인권 간담회”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 NPO 법인, 학식 경험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조연구의 견을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의 주체가 그 의의를 이해하고 활동함으로써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누구나 여유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계발과 자발적 노력을 지원합니다.

시민, 지역단체에 기대되는 역할

- 직장 및 학교를 비롯해 사회 내에서 실시되는 인권 연수 등의 참가
-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교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올바르게 이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편견이나 차별을 나와 밀접한 문제로서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활동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 인권 존중의 관점을 가진 기업 활동

- 누구나 일하기 편한 직장 조성
- 고객 서비스와 기업 이미지 향상

- 기업 전체의 이익
- 사회 전체의 인권의식 향상

